

막나가는 녹용수입업체, 이제는 캐나다산까지

- CWD 수입금지 녹용,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 후 유통 -

수입 부적합 녹용을 반송·폐기조치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시킨 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사슴만성소모성질병으로 인해 녹용수입이 전면 금지된 캐나다산 녹용을 국내에 반입,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가 있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경찰청 외사3과는 캐나다산 녹용을 북한산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하여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A트레이딩 대표 박○○(43세, 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2003년 2월부터 6월까지 2회에 걸쳐 사슴만성소모성질병으로 수입이 금지된 캐나다산 녹용 7톤(시가 13억원 어치) 상당을 중국을 통해 북한을 경유, 북한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시중에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수입한 녹용 7톤 중 4톤을 이미 11억원 상당에 시중에 판매시켰으며 나머지 3톤은 판매할 목적으로 사무실(동대문구 제기동) 옥탑 창고와 안성에 소재한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캐나다산 녹용이 수출금지로 인

해 가격이 바닥세인 점과 북한을 통해 수입할 경우, 통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박씨는 캐나다산 엘크 녹용을 북한산 마록으로 위변조, 관세 2억원까지 환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외사과는 보관중인 녹용에 대해 압수 조치하는 한편 녹용수입대금 추적 조사를 인터폴을 통해 의뢰했다.

한편 본회는 이번 수사 협조를 위해 캐나다 지역의 사슴질병 현황 및 수입 금지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경찰청 외사과에 제출했으며 박씨가 수입해온 녹용 원산지를 캐나다산으로 감정해준 바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2002년 6월경 캐나다 녹용 판매업체인 "Moore's Auction Ltd"에서 한국의 녹용 수입업체들에게 녹용 구매를 요청하는 편지를 입수, 관련 자료로 제출했다. 이 편지에는 "한국은 캐나다산 녹용에 대해 수입이 금지되어 선적이 불가하지만 미국 홍콩 중국 등 제3국을 통해서 선적이 가능하다"라고 쓰여져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수출 금지로 인해 가격이 바닥세인 캐나다산 녹용을 제 3국 등을 통해 경유, 국내로 반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공중과 방송 3사를 통해 메인 뉴스시간에 주요 사건으로 보도됐으며 주요 일간지에도 비중있게 보도돼 당분간 소비자들의 외산녹용 기피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양육**